

신안군, '1004에코호' 취항식

2020년 행안부 공모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선정 총사업비 25억원 투입...5톤트럭 8대·승선신원 15명

전국 최초로 공영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신안군이 이번에는 연료운반선 "1004 에코호"의 건조와 시범운항 등 모든 검사를 마치고 7월 11일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취항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장과 사업관계자 및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압해읍 송공항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004에코호는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군비 15억원,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한 228톤 규모의 차도선으로 5톤트럭 8대를 선적할 수 있고, 승선인원은 15명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의 섬 주민들에게 LPG, 휘발유 및 생필품 등을 안전하고 정기적으로 운송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선박 내 크레인 2기를 설치하여 해양에 밀려

드는 팽생이모자반과 해양폐기물을 적기에 수거·운송할 수 있는 다목적 화물선이다.

1004에코호 운항은 압해·지도·증도권, 비금·도초권, 신의·하의·장산권 등 3권역으로 나누어 운항 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었을 섬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연료와 생필품을 제공하게 되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해상교통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안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지역농산물 활용 '떡 전문가 양성 교육' 호응

다양한 모시떡 상품화 가능성 기대

영광군은 다양한 모시떡 상품화를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 까지 총 4회차로 관내 떡가공업체 15여명을 대상으로 "떡 전문가 양성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떡 전문가 양성교육은 지역 떡산업을 이끌어갈 떡 가공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모시떡 상품 개발 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떡류(모시전빵, 모시증편 등) 4종을 실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점점 다양해지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품의 개발 필요성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모시떡 상품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미 지난 5년간 떡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서 가공업체의 기술 향상과 다양한 모시떡류의 상품화로 떡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연기자

함평군, 여름 휴가철 대비 공중화장실 점검 실시

함평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 급증에 대비한 공중화장실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카메라, 비상벨 등 안전장치 작동 여부, 위생 및 청결 상태, 이용자

편의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앞서 군은 3년 만에 개장한 지역 물놀이 명소인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내 화장실 4개소와 달의실 등을 개장 전 점검을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군 서호면, 기관·단체장협의회 회의 개최

영암군 서호면(면장 노명환)은 지난 12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단체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당면업무 전달, 기관간 협조사항 공유 등 면정 발전을 위해 면내 기관사회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전세제적인 물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으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는 만큼 면내 주요 기관·사회단체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명환 서호면장은 "기관·사회 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호면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무안연꽃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현장에서 개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 주제



무안군은 지난 11일 일로읍 회산백련지 향토음식관에서 제25회 무안연꽃축제 담당부서

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전체 실

단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감독의 축제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각 실과별 추진상황 점검, 현장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25회 무안연꽃축제는 오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에 지친 관광객을 위해 낮에는 회산백련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와 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연기능성 체험장'을 조성하고 야간에는 신비로운 연꽃 스토리텔링을 강화했다.

오는 7월 15일 3년 만의 재개장을 앞둔 회산백련지 물놀이장을 둘러본 김산 군수는 "코로나에 지친 군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쉬어갈 수 있도록 행사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회산백련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